

예배 및 모임안내

2021-43 2021년 10월 24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31	11. 07	11. 14
대표 기도	정용현 집사	통성기도	황희순 집사
성경 봉독	정용현 집사	김민혜 자매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감사 - 설교해주신 맹기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Sommerzeit 해제 - 다음 주일(31일)부터 한국과 8시간 시차 있습니다(핸드폰 확인요망)
3. 예배 전 찬양 -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정용현 안수집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 308장 ..... 다같이  
 기 도 Gebet ..... 김영희 시무권사  
 성경봉독 Predigttext ..... 고전 13 : 1 - 13(신p279)··· 김영희 시무권사  
 설 교 Predigt .....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맹기현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 310장 .....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정용현 안수집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정용현 안수집사  
 축 도 Segnungsgebet ..... **맹기현 목사**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 행복의 현주소

사람들이 행복을 남발하여 행복이 귀한 줄 모르게 되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들의 행복을 은밀한 곳에 숨겨 인간들이 쉽게 찾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숨길만한 장소를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한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을 깊은 산 속에 숨겨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안 됩니다. 인간들은 땅을 파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 되는 사람이 그럼 어디에 숨기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 때 한 지혜로운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깊은 바다 속에 묻읍시다. 거기는 절대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안 됩니다. 잠수함을 타고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도 안 되고, 바다도 안 되면 도대체 어디에 숨겨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도자가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한 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인간의 마음에 숨깁시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행복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쉽게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행운을 얻고자 발견하기 어려운 네잎 클로버를 찾아 헤매지만, 행복의 세잎 클로버는 주변에 널려 있지만 관심조차 주지 않지요.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헤매는 어리석음과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세잎 클로버를 짓밟는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행복 / 황일동 목사  
(성진교회 담임)

\* 행복도 하나의 기술이다. 즉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 Karl Hilty(1833년 ~ 1909년)